

전남, 2022년까지 수소차 600대 보급

여수서 '수소경제비전 선포식'... 기반 마련 본격화 부품생산기지·전문인력 양성·충전소 7곳 구축 등

동부권을 수소 연료전지 및 부품·소재 생산기지로 조성하고 중부권에는 한전공대 등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원천기술 개발 거점을 마련하는 등 전남지역을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 <광주일보 4월 1일 5면>

전남도는 22일 여수시청에서 '수소경제비전 선포식'을 열고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이날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토대로 지역 내 수소산업 잠재력을 활용,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

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린수소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를 의미한다. 전남지역의 경우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량(1991GWh)과 해상풍력 잠재량(12.4GW) 등이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좋은 생산 여건을 갖고 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권역별로 동부권은 수소 연료전지와 부품·소재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특화 산단을 조성하고 수소의 생산과 저장, 이송 관련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만권에 17개

수소 연료전지 핵심 부품·소재 기업들이 집적화된 점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중부권은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그린수소 원천기술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하고 영광 e-모빌리티 산업용 소형 연료전지 개발에도 주력한다. 서부권에는 서남해안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연계한 그린수소 대규모 생산·실증단지 등을 구축하는 한편, 그린수소를 활용한 에너지자립 섬 사업을 추진한다. 또 전남지역에 2022년까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7곳을 구축해 수소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전공대 및 지역 대학과 연계한 수소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전남테크노파크 등 전남지역 기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수소전문기업 육성과 지원, 중소기업진흥원 등을

통한 운영 자금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수시도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수소 생산 실증단지, 울촌산단권 수소 부품·소재 특화단지, 삼동지구 수소 시범도시 등을 조성해 수소 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이날 비전 선포식에서 여수시, 여수산단 GS칼텍스 등 10개사, 한국전력,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4개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하고 전남 수소산업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수소 경제를 전남이 선도하고 국가 그린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 법성포굴비정식거리 조성된다

전남, 남도음식거리 선정... 장성 장어·강진 돼지불고기 등

2019년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영광 법성포굴비정식거리, 장성 장성호장어정식거리, 강진 병영돼지불고기거리 3개소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고 관광산업 파급 효과가 큰 남도음식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하기 위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지난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순천, 광양, 곡성, 보성 등 9개소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지난해 선정된 무안 낙지거리, 장흥 키조개·바지락 거리는 오는 12월 새롭게 단장해 개장할 예정이다.

추진하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출발지로, 장성호 수변길 관광객 유도 방안과 조성 후 자립화를 위한 음식점 변형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병영돼지불고기거리는 병영성, 하멜 기념관 등과 연계한 관광 거점지로 발전 가능성,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돼지불고기 유래 등 음식관광 스토리텔링 방안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음식, 관광,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거리 조성계획의 적절성, 지역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 선정, 관광과 연계한 계획, 자체예산 확보, 상인회 참여, 지자체 참여 등 서류평가와 현장 평가를 구분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남도음식거리는 2020년까지 개소당 10억원을 지원받아 거리 상징물 및 편의시설 설치, 간판 개선, 보행로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법성포굴비정식거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영광굴비를 여촌 뉴딜사업과 연계해 법성포구 일대 굴비맛길을 브랜드화하고, 음식자원과 관광자원을 융합한 음식관광 경쟁력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성호장어정식거리는 장성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순천, 광양, 곡성, 보성 등 9개소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지난해 선정된 무안 낙지거리, 장흥 키조개·바지락 거리는 오는 12월 새롭게 단장해 개장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음식, 관광,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거리 조성계획의 적절성, 지역 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 선정, 관광과 연계한 계획, 자체예산 확보, 상인회 참여, 지자체 참여 등 서류평가와 현장 평가를 구분해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남도음식거리는 2020년까지 개소당 10억원을 지원받아 거리 상징물 및 편의시설 설치, 간판 개선, 보행로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美, 北 미사일 또 발사시 안보리 대응 요구하겠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등 관계국에 밝혔다. <도쿄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날 중순 뉴욕에서 일본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안보리 개회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다음은 간과하지 않았다. 안보리에서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겠다"고 도쿄신문은 보도했다.



"DMZ 철원구간 개방합니다" 22일 시민들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美, 북한 화물선 반환 요구에 "유엔 국제 제재 유지될 것"

미국 국무부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반환하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화물선 압류에 대해 "불법 무도한 행위"라면서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과 시에라리

온 국적으로 이중 등록된 선박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석탄 2만5000t가량을 실은 이 배가 지난해 4월 1일께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됐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된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이 선박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즉각 반환하라는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의 요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대로 국제 제재는 유지되고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이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화물선 압류에 대해 "불법 무도한 행위"라면서 즉각 반환을 요구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과 시에라리

정부, ILO 핵심협약 3개 비준 절차 착수

국회에 동의안 제출기로... 노사·정치권 거센 논쟁 전망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권 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으로, 찬반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쟁이 일 전망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서 "미비된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

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경영계는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공약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내걸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작년 7월부터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했으나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익위원 권고안만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 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야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함 992㎡(300P), 지분 매매
▶ 기획 부동산 물건 아님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사정상 급매함, 4,500만원(일시불)
H. 010-6834-7400

▶ 단기 투자 최고의 물건임
▶ 인접 땅지도 15만~20만원씩매매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96 10 point

2 4 6 3 7 1 2 8 0
90 8 point

4 6 2 8 1 0 9 7 3
84 6 point

2 7 6 2 1 4 9 0 2
78 5 point

4 5 7 8 9 0 0 0 0
72 4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11* 3 point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기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 (총 4회)
시간	오후 3시 ~ 6시
장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대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지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신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단체 지원 환영)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 주관 | 소크라테스대화법연구소
▶ 주최 | 전라남도교육청
▶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